



정교회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안디파스 주교순교자

사순절 제5주일 / 마리아 이집트 수녀

성 테오도라 테살로니키의 수녀

제1조, 조과복음 9

성 대바실리오스 성찬예배에서

· 제1조 부활 찬양송 / 81. A 211

· 주일 입당송 / 46. A 139

· 성마리아이집트 수녀 찬양송/비교정 축일 성가집 51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가송 / 85. A 226

· 사도경: 히브리 9,11-14 / 234. 봉독서 457

· 복음경: 마르코 10,32-45 / 141. B 99

· 성모송(성 대바실리오스 성찬예배) / 62. A 171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 주는 구원의 말씀 성 안디파스 주교순교자

우리 교회에서 4월 11일 축일로 기념하는 베르가모의 안디파스 주교순교자는 요한 묵시록에서 말씀으로 언급되는 분으로 사탄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때에도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분입니다.

“날카로운 쌍날칼을 가지신 분”(요한 묵시록 2:12)께서 베르가모 교회의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네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너는 내 이름을 굳건히 믿고 있다. 또 나의 진실한 증인 안디파스가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

하던 날에도 너는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요한 묵시록 2:13)

베르가모뿐만 아니라 지상 모든 곳에 사탄이 살고 있다는 것에 누가 의심을 품을까요? 또한 오늘날 지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증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의심이 없습니다. ‘거룩하고’, ‘공변된’ 교회가 있다면 — 누가 교회의 존재에 대해 부정할 수 있을까요? — 그것이 바로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증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용서와 화해



용서 주일로 시작된 사순대제가 어느덧 중간 단계로 접어들었다. 엄격한 금식과 철저한 기도 시간을 갖고 사순절을 지키며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 일수록 깊고 넓은 영적 결실을 맺게 되며 더 큰 기쁨의 부활절을 맞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맺으신 영원한 부활의 열매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도 성령의 힘으로 맺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씨앗은 서로 간의 용서와 화해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용서의 어원은 원래 화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 우리 조상인 노아가 살고 있던 그 시대 사람들은 하느님을 저버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죄를 짓고 살았다. 악으로 가득한 인간들을 하느님께서 홍수로 모두를 멸하시고 의로운 삶을 살았던 노아와 그 가족과 동물만 살리셨다. 홍수가 끝날 무렵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있던 노아에게 주님께서 화해해 주셨다는 상징을 뜻하는 올리브 나무 가지를 비둘기가 입에 물고 노아에게 돌아왔다. 이로써 하느님과 노아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하느님의 사람들은 옛 것에 대한 모든 것을 모두 청산하고 새로운 창조의 모습으로 하느님과 화해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드리는 기도인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는 하느님께서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한 노하심을 푸시고 화해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기도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비나 용서를 간구하는 이들과 화해하시고 얼굴을 마주하며 서로 대화를 나누며 친교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신다. 모세가 하느님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던 모습이 바로 화해의 모습이다. 용서 주일에 서로 용서하며 화해로 시작된 사순대제는 노아와 모세처럼 하느님과 화해가 되어 함께 얼굴을 마주보며 친교를 이루는 기간이다. 만일 우리가 내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진정한 화해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의 모상인 하느님과 화해하며 친교를 맺을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이웃을 용서했다는 증거로 행동 없이 말로만 행해지는 용서가 아닌 진정한 화해로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이루어진 참된 친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부활의 열매를 맺어주는 이웃과 용서와 화해의 삶이 사순대제 기간에 꼭 이루어져야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인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 다니엘 나창규 대신부

영적 성장을 위한 비타민

이사야의 환상

— 예언자 이사야는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동안 하느님에 대한 엄청난 환상을 보았다. 그는 기록하기를, “나는 주께서 드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다... 날개가 여섯씩 달린 세라핌들이 그를 모시고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 주고 받으며 외쳤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다.’”(이사야 6:1-3)라고 하였다.

하느님이 계신 곳에 서있으면서 예언자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슬픔에 잠겨 말하였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틈에 끼여 살면서 만군의 주, 나의 왕을 눈으로 뵈다니...”(5절)

그때 하느님은 천사를 보내서 불타는 숯으로 예언자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셨다. 그리고 나서 하느님은 예언자더러 백성들에게 가 당신의 말씀을 대신 전하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명령이 있기 전, 예언자는 말하였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8절) 하느님에 대한 위대한 환상은 이사야 예언자의 삶에서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 예언자가 본 환상이 우리에게도 실제로 일어나게 하셨다. 성찬예배에서 우리가 주님의 고귀한 몸과 피를 받으려고 앞으로 나아갈 때, 성체와 성혈이 마치 불타는 숯처럼 우리의 입술에 와 닿는다. 또한 사제의 봉헌 기도에 따라 성가대가 (이사야가 본 환상 속에서 천사들이 부르던 것과 같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다.”하는 찬양을 하는 것을 들을 때,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분이 축성된 빵과 포도주 속에 계심으로써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시기 위해 영광 속에 몸을 굽혀 내려오신다. 따라서 우리는 이사야 예언자가 본 이 환상을 마음에 새기면서 거룩한 성찬예배 때 그리스도께로 다가가야만 한다.

▶ 아타나시아

소 식

대교구

■ 전 세계적 유행성 질병 코로나19에 대한 기도(우리가 맞닥뜨린 신종 코로나19)

▷ 전능하신 만군의 주님, 세상의 구원자시여, 병든 자의 의사이고 도움을 주시는 이여, 환자를 낮게 하시는 구세주시여, 사람들의 육신과 영혼의 슬픔을 치유하시는 이여, 죽음을 물리친 이시여, 당신께 간청하나다. 우리 하느님이시여, 육신과 영혼을 모든 질병과 더러움에서 벗어나 깨끗하게 해주소서. 주여, 우리를 저버리지 마소서. 하늘로부터 치유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내주소서. 우리에게서 모든 위협적인 병들을 쫓아내주소서. 이 전염병이 돌고 있는 시기에 모든 악과 나쁜 것들과 슬픔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소서. 주여, 이 재앙을 끝내주시고 우리에게 인내심을 주옵소서. 우리를 격려해주소서. 우리 모두의 의사가 되어주시어 고통의 병상과 나쁜 것들의 병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소서. 의사들과 간호사들, 그리고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모든 이들의 간청을 받아주소서. 그들은 환자들에게 보살핌과 위안을 주고 있나다. 당신의 자애하심으로 그들을 도와주소서. 당신의 힘으로 그들을 강하게 해주소서. 이 저주받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떠난 이들에게 평온한 안식을 주소서. 그들은 당신의 종이며, 우리의 형제자매입니다. 당신의 거룩한 교회에서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경배하고

영광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과 회복을 주소서. 우리 하느님이시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께 영광을 돌리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이제와 항상 또 영원히 있나다. 아멘.

■ **예배 생중계** ▷ 지난 3월 22일 주일 성서공부를 시작으로 27일 성모기립찬양, 28일 대만과, 29일 성찬예배를 생중계하였고, 또한 계속해서 **매일 예배를 오전 9시와 오후 5시에, 주일 성찬예배**를 대교구에서는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가정에서, 지금 있는 장소에서 유튜브의 <http://www.youtube.com/user/KoreaOrthodox> 주소로 들어오시면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표는 한국 정교회대교구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 전주 성모 안식 성당 재건축 계약 체결

▷ 수년의 노력 후에, 하느님의 도움과 성모님의 중보로 2020년 3월 27일에 정교회 한국대교구와 (주)이코 건설사와 전주 성모 안식 성당과 영적 센터 건축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사는 2020년 4월 6일 시작하여 2021년 6월 30일 완공 예정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기도와 함께 이 신성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할 수 있는 만큼 경제적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 신성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주간 예식

- 화·수·목요일 오후 5시 : 석후대과
- 4월 8일(수), 10일(금) :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 4월 11일(토) 라자로의 부활 토요일 오전 9시 : 축일 조과, 성찬예배
- ▶ 자세한 예배 시간은 각 성당 사무실에 문의해 주십시오.